

역사·문화의 현장 속에 '생태'가 있다



고창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서문 앞 일원이 역사와 문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생태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국 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은 도심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경관 조성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1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사업에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협력금을 재원으로 식생 복원, 생태 시설물 설치, 생태습지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국비 5억 등 총 사업비 6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인 고창읍성 서문 앞 일원 9,948㎡에 자생수종을 이용한 생태 숲, 습지·초지 등 작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생태놀이터와 관찰테크 등을 조성하여 문화와 역사,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고창읍성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자연생태체험과 생태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자, 도심 속 힐링체험을 만끽할 수 있는 '소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군 환경위생과 봉관종 과장은 "고창읍성 서문 일원에 조성된 '소생태 공원'과, 올 연말 마무리될 계획인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은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힐 수 있는 공간이자 생태공간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 고

창군의 운곡담사르습지, 고창갯벌람사르습지, 세계 문화유산 고창고인돌유적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자연생태체험 1번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 선정 자생수종 이용한 생태 숲·습지 등 조성 도심 속 힐링 만끽 '소생태공원' 거듭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편한편)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몽 및홍지민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안전 지식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